

혁신도시 변질 국민저항 부른다

한전 등 20여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빈 껌데기만 남을 듯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데다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 등 20여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크게 변질되고 있어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토지·지장물 보상비만 3천 200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재검토와 함께 혁신도시도 변질·축소할 태세여서 지역민들은 “한전 없는 공동혁신도시는 ‘빈 껌데기’에 불과해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통째로 바꿔버리는 행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등은 최근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을 비롯해 가스공사,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20여개 기관을 혁신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 조성비용이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2.6~6.2 배 비싸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 입주할 기업이나 연구소가 없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일부를 임대 산업단지로 개발하

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꼽고 있는 한전은 17개 기관이 입주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중추 기관으로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핵심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

한전은 예산이 29조5천482억원에 달하는 최대 공공기관으로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185억원이며, 고용 효과 1천577명, 생산유발효과는 881

억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이다.

여기에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연관 기업인 한전기공, 한전 KDN의 연쇄 민영화도 배제할 수 없어 공동혁신도시의 근간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정부가 이전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부의 맹목적인 혁신도시사업 재검토는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희망을 저버림은 물론 지역적 낙후를 고착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부지 가격이 높고 특화돼 있지 않다는 게 재검토의 핵심 논리인데, 분양가는 시행자인 토지공사·주택공사가 올린 것이지 지역에서 높은 것이 아니며 조성계획도 IT·농업·에너지·문화 등으로 이미 특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빈 공간 늘어나는 목포 신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관련기사 10면>

목포 신항(만주)이 선적료 인상을 요구하며 기차차 광주공장의 수출차량에 대해 선적을 거부하면서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목포 상공에서 본 신항만 아적장의 빈 공간이 크게 늘었다. (월기 협조) /나영자기자 mjna@kwangju.co.kr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오늘 개막 45일 대장정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친환경 엑스포인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가 17일 개막식을 갖고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14면>

17일 오후 2시 함평군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엑스포조직위원장인 박준영 전남지사, 이사장인 이석형 함평군수, 명예 이사장인 일본의 세계적 디자이너 모리모리나에 여사 등 국내외 귀빈과 관광객, 군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社告

‘월요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광장’ 필진이 오는 21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 지식과 해안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필자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월요광장’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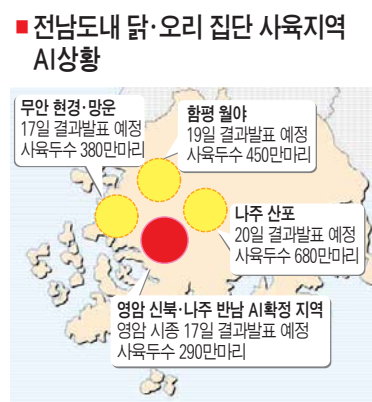
장병완 총장 정찬용 원장 김용기 연구원 민혜숙 교수

- ◇장병완 호남대 총장
 -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석사, 중앙대 행정학 박사
 - ▲제 17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UN-ESCAP 아태 민간투자장관회의 의장
- ◇정찬용 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 원장
 - ▲서울대 언어학과 졸업 ▲광주 YMCA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상임공동대표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NGO 담당 대외직명대사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서남해안 포럼 상임대표
-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정책개발실 수석연구원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경대학 경제학 석사·국제정치경제학 박사 ▲영국 옥스포드대 로이터펠로우 ▲동아일보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민혜숙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 ▲연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연세대 불문학 석·박사,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소설가 ▲‘문학사상’ 중편소설 부문 ‘내니이까’로 신인문학상 수상(1994년)

光州日報社

전남 AI 확산 주말 ‘분수령’

고병원성 판정 뎀 1,800만 마리 살처분



전남지역 닭·오리 최대 집단 사육 지역인 나주·함평·무안·영암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 여부가 17~20일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이번 주말이 AI의 전남 전역 확산 여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최대 사육지 AI감염 확산 여부 이번 주말 판가름=영암 신북과 나주 반남 등 2개 농장에서 이미 AI가 확진된 상태이며, 이번 주말에 나오는 나주(산포·공산 등)·함평(월야)·무안

(현경·운남)·영암(덕진·시중) 등 4개 지역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전남 양계농가의 몰락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나주시 산포면에는 423개 농가 680만 마리, 19일 발표되는 함평에는 450만 마리, 17일 발표되는 무안과 영암에는 각각 380만 마리, 29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는 등 이들 4개 지역에는 전남지역 총 사육두수 3천100만 마리

의 60%인 1천800만마리가 집중돼 있다. 따라서 고병원성 판정이 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구례군 문척면과 나주 공산면의 닭·오리 농가에서도 16일 AI로 의심되는 폐사 신고 2건이 전남도에 접수됐다.

◇AI발생 경계지역(3~10km 이내) 닭·오리 시가 수매=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경계지역(3~10km)에 위치한 농장의 닭과 오리 시가로 수매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전남도와 농협은 다음주부터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영암군 신북면과 나주 반남면 농장을 기준으로 3~10km의 경계지역 안에 있는 112개 농가 총 325

만 마리를 시가 기준으로 수매한다.

◇상시방역 등 정부대책 마련=정부는 앞으로 AI 방역체계를 겨울 등 특정기간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국립전남대학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고향인 광주에서 법무법인 로콤의 대표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력 및 경력

- 광주서중, 경기고, 서울대법대 졸업
- 광주고려법, 대구고려법, 법무연수원장, 전주지검장
- 대검관송무부장, 범죄정보기획관, 미약과장
- 광주지검순천지청장, 대구지검김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형사 2부장, 4부장, 5부장
- 서울북부지검특별수사부장
-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법무심의관실장

●개업소년 : 2008년 4월 17일(목) 17:30분

변호사 임내현 올림

●업무개시 : 2008년 4월 10일(목)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6-33 법무법인 로콤

●대표전화 : (062)228-9999 ●FAX : (062)228-9909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승세기스타·세계보청기

1588-34001 062-222-0100

062)228-9909